



2022.12.5.

국회미래연구원 | Futures Brief | 9호

이머징 시티즌의 등장과 사회적 전환: 6개 지역 시민과 미래 대화



박성원 (혁신성장그룹 연구위원)



국회미래연구원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Futures Brief

2022. 12. 5.

Vol. 9

ISSN	2799-3531
발행일	2022년 12월 5일
발행인	김현곤
발행처	국회미래연구원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222호 Tel 02-786-2190 Fax 02-786-3977

「Futures Brief」는 국회미래연구원이 정책고객을 대상으로 발행하는 단기 심층연구결과로서, 내부 연구진이 주요 미래이슈를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국가의 미래전략을 제시합니다.

이머징 시티즌의 등장과 사회적 전환: 6개 지역 시민과 미래 대화

혁신성장그룹 연구위원 박성원

요약

- I. 이머징 시티즌의 등장
- II. 이머징 시티즌과의 만남
- III. 미래 전망 워크숍 프로그램
- IV. 이머징 시티즌과 나눈 미래 대화
- V. 성장 앞에 붙여야 할 단어들

참고문헌

요약

- 미래에 심화할 문제를 앞서 경험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이머징 시티즌(창발적 시민)의 발굴
 - 장차 우리사회 전체가 겪을 문제의 본질과 대안을 제시하는 시민을 이머징 시티즌 또는 창발적 시민으로 정의
 - 기후위기, 남북갈등, 불균형발전, 거주 불안, 가족해체, 기술격차, 환경파괴 등 점차 심화하는 사회적 문제를 몸소 경험하는 이머징 시티즌과 나눈 미래 대화
- 강원도 비무장 접경지대 주민, 대전 다문화 이주민, 대구 공연예술인, 전북 귀농귀촌 청년, 전남 고령장애인과 돌봄노동자, 제주 해녀 등 총 120명의 시민과 미래 전망 워크숍 진행
 - 현재와 미래에 겪을 어려움, 어려움을 가중하는 사회적 요인과 대안 등 논의
 - 국가 주도의 성장, 경제성장 중심주의, 효율성과 능력주의에 대한 창발적 시민들의 비판
- 대안을 찾아야 할 사회적 문제들
 - 6개 지역 시민들과 미래워크숍에 나눈 사회적 문제와 주요 내용을 정리(표1)
 - 주요 내용을 보면 특정 지역과 계층, 그룹만 겪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사회 전반에 퍼져있는 문제들로 볼 수 있음
 - 결국, 이 문제들을 풀지 못하면 더 많은 시민에게 불안감과 좌절감을 줄 가능성이 큼

<표 1> 이머징 시티즌이 경험한 사회적 문제들과 주요 내용

이머징 시티즌이 경험한 사회적 문제들 (지역별 미래 대화에 참여한 시민들)	주요 내용
꿈을 빨리 실현하지 못하면 쫓아내는 정부 정책 (전북 귀농귀촌 청년들)	정책 대상의 초기 유입 단계만 집중, 단기에 양적 성장만 추구하는 정책
외형에만 투자, 문화 자산은 축적하지 않는 정책 (대구 공연예술인들)	문화시설, 행사유치에만 지원 집중, 문화를 만드는 창작자의 역량, 창작물 보호, 창작자 생태계 조성은 소홀
경제성장과 환경보존의 지속적 갈등과 대안 부재 (강원 DMZ 접경 주민들)	중앙정부와 지역정부 갈등 지속, 거주민의 참여를 배제하는 정책 과정
사회가 불안하면 소수와 약자부터 차별하는 문화 (대전과 세종시 다문화 이주민 여성 노동자들)	경제적 기여를 기준으로 차별하고, 성장의 기회를 독점하려는 사회지배층

이머징 시티즌이 경험한 사회적 문제들 (지역별 미래 대화에 참여한 시민들)	주요 내용
가족과 공동체의 해체, 사회적 돌봄의 약화 (전남 고령장애인과 돌봄노동자들)	소외감과 외로움을 느끼는 시민들의 증가, 돌봄 노동자의 역할 축소
미래세대, 미래환경을 파괴하는 정부의 무책임 (제주 해녀들)	경제발전과 도시개발을 명분으로 환경파괴, 인재 양성 시스템의 관료화

I. 이머징 시티즌의 등장

지난 4년 동안 국회미래연구원이 전국에 거주하는 시민들과 새로운 선호미래상을 논의한 결과, 어느 지역이든, 성별이든, 세대가든 대다수가 공감하는 것은 ‘경제성장 중심의 미래상’을 극복해야 한다는 것이었다(박성원 외, 2019; 박성원, 2020; 박성원, 2021a). 더 이상 매년 경제성장률만으로 한국 사회의 미래를 판단하지 말자는 것이었다. 경제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경제만 중요하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자는 것이었다.

2021년 국회미래연구원은 ‘성장사회를 넘어 성숙사회로 전환’이라는 선호미래상을 제시한 바 있다(국회미래연구원, 2021). 15년 앞의 선호미래상을 국민과 함께 숙의토론한 결과 성숙사회라는 미래상이 도출되었다. 성숙사회는 ‘국가 주도적 성장을 지양하고 개인이 자율적으로 성장을 기획하고 추구하는 사회’, ‘중앙집권적 거버넌스를 넘어 지역사회의 자율적 거버넌스를 강화하는 사회’, ‘무엇보다 사회적 약자와 소수를 돌보는 사회’로 정의할 수 있다.

이런 국민의 요구는 사실 새로운 것이 아니다. 그러나 성장사회를 추구하는 사회적, 정치적 관성 탓에 대안적 미래비전으로 발전하지 못했다. 이제는 이런 요구의 실체를 인정해야 한다. 기존의 경제성장 중심의 비전을 대체하는 미래상으로 당장에 정하기는 어렵더라도 대안적 미래의 후보군으로 고려할 수 있다. 선호미래상은 많을수록, 그래서 서로 치열하게 경쟁할수록 사회 발전에 유익하다. 그만큼 우리사회가 당면한 문제의 근원을 다른 시각에서 분석하고 대안을 창조하는 기회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성숙사회가 일반시민에게 대안적 미래비전과 장기간 추구해야 할 선호미래로 받아들여지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성숙사회라는 미래사회상을 실현하면 어떤 미래가 펼쳐질 것인지 이해하려고 해도 수많은 시행착오와 노력이 요구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사회 곳곳에서 성숙사회의 씨앗을 심거나 성장사회의 한계를 논의하고 대안을 찾으려는 지역이나 공동체, 개인들이 있을 것이다. 이들이 성숙사회의 씨앗을 심어놓고 키우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이런 비전을 발견할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한국의 문화적 전통에서, 다양한 사회적 실험에서, 개인 단위의 실천에서 성숙사회를 구성하는 조각들이 만들어져 있을 것으로 생각했고, 이를 발견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우리는 이들을 만나보기로 했다. 물론, 이들이 명시적으로 ‘성숙사회’를 언급하지는 않았어도 성장사회의 한계를 앞서 경험하고 이를 극복할 대안적 생각들을 공유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우리는 이들 시민을 ‘이머징 시티즌(emerging citizen)’이라고 명명했다. 우리말로는 창발적 시민인데, 두 가지 의미가 중첩되어 있다.

하나는 우리사회가 경험할 문제를 앞서 경험했다는 점이다. 이머징 시티즌은 미래학의 ‘이머징 이슈’에서 그 개념을 빌린 것인데, 이머징 이슈는 장차 사회가 겪을 미래 이슈를 뜻한다(박성원, 2021b). 이머징 이슈가

사회 전반에 확산할 것으로 예측하듯, 이머징 시티즌이 경험한 문제는 이들만의 경험으로 끝나지 않는다. 곧 우리사회 구성원 대부분이 겪을 문제가 된다는 점에서 이들의 경험은 현재적이지 미래적이다.

둘째는 앞서서 경험했기에 대안을 구상하는 데에도 한발 앞서있을 것이라는 점이다. 인간은 외부 환경 변화에 적응도 하고 대응도 하면서 진화하고 발전했다. 현재 생존하고 있다는 것은 나름의 대응 전략이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 그렇다면 이머징 시티즌과 대화에서 우리는 앞으로 우리사회가 겪을 문제와 이를 풀어낼 대안의 씨앗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이들은 창발적 시민이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신의 환경에서 자발적으로 대안을 내놓는다는 점에서 창발적이다.

그렇다면 누구를 어디에서 만나야 할까. 이머징 시티즌은 어디에 있는가.

II. 이머징 시티즌과의 만남

이머징 시티즌은 그 단어가 내포하듯 소수나 약자 그룹에 속할 가능성이 있다. 아직 수적으로 많지 않다는 점에서다. 정치적 목소리가 작아 어떤 사회적 문제를 겪어도 그 문제로 벌어지는 고통을 외부에 알리는 데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러나 이들이 겪고 있는 사회적 문제는 중장기적 미래의 관점에서 그 문제의 심각성과 파급성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렇기에 이들의 이야기를 공론화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런 문제를 품고 있는 이머징 시티즌을 우리는 지역사회에서 찾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이머징 시티즌 연구에 뜻을 같이하는 6개 시도연구원과 협업하기로 했다. 시도연구원은 지역사회의 문제뿐 아니라 지역의 관점에서 한국사회 전체의 문제점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연구기관이면서 지역에서 발신하는 기회나 희망을 먼저 포착하고 있는 곳이다.

우리는 이머징 시티즌을 만날 때 세 가지 기준을 만들었다.

첫째, 지역의 특징을 나타내면서도 소수나 약자 그룹에 속하는 시민들을 만나보기로 했다. 예컨대, 우리는 대구에서 공연예술인을 만났다. 대구는 우리나라 최초의 연출가 홍해성(1893~1957)을 배출한 곳이다. 대구에서 태어난 그는 한국인 최초로 일본 극장의 전속배우로 활동했고, 귀국해 극단을 조직해 ‘모란동기’ ‘벚꽃동산’ ‘검찰관’ 등을 연출했다. 우리나라 근대극의 발전에 기여한 인물로 기억되고 있다.¹

1950년대 교토의 중심지로서 대구는 수많은 연극인이 활동한 곳이다. 한국전쟁 이후 폐허가 된 곳에서 상실의 사회적 분위기를 연극인들이 달래주었다. 대구는 1984년부터 시작한 대구연극제, 2004년에 시작한 2019년에 막을 내린 대구 호러(공포) 연극제, 2007년부터 시작한 대구 국제뮤지컬 페스티벌 등 국내 공연예술 축제의 다양성을 제공하고 있다(박경숙, 2022).

1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참조

그러나 대구의 지역공연예술인들은 열악한 제작 여건으로 정부의 지원금에 다수가 의존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소극장 시설은 노후화되었다. 공연으로는 수익을 창출하지 못해 연극계에 새로 진입하는 청년들이 줄어 연극인의 연령대도 높아지고 있다. 우리가 ‘미래 전망 워크숍’에서 만난 연극인들은 대부분 생계를 위해 편의점 아르바이트, 택배, 대리운전 등 2~3개의 직업을 갖고 있었다.

공연예술인은 경제성장에 매몰되어 여가 없는 한국인의 삶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앞으로 출생률이 더 낮아지고 인구가 더 줄어들면 공연을 보러오는 관객들도 줄어들 텐데 이들은 어떤 미래를 전망하고 있을까.

제주에서 만난 해녀들도 지역을 대표하지만, 소수와 약자 그룹에 속한다. 이들은 유네스코의 문화유산으로 지정될 정도로 문화적 보존 가치가 높지만, 제주에서 이들은 철저한 약자에 속한다. 해녀들도 자신을 “약자”로 표현한다. 생활의 터전인 바다가 육지의 개발로 오염되고 망가져도 이들의 목소리는 정책가들에게 가닿지 않기 때문이다. 세계적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바다 생태계가 악화하고 외래종의 유입으로 제주의 바다 색깔이 변해가는데도 이들은 이런 환경의 부정적 변화를 지켜볼 수밖에 없다. 이들에게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

둘째, 성숙사회와 성장사회의 가치가 충돌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시민들을 만나보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강원도의 비무장지대(DMZ)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살펴보았다. 이들이 거주하는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등은 군부대가 많아 환경과 삼림 규제가 많다. 천혜의 자연을 갖추고 있어 한국의 ‘폐’ 기능을 하는 곳이기도 하다. 최근에는 탄소중립 추진전략의 주요 거점으로 인식되고 있다(양철, 2022).

외부인의 시각에서 보는 강원도와 내부인의 시각에서 보는 강원도는 차이가 작지 않다. 외부의 시선에서 강원도는 환경보존과 군사적 평화를 도모하는 중요한 곳이다. 그러나 내부자의 시각에서 이들 지역은 늘 경제적 손해를 보고 있으며 도로 등의 기반 시설이 점차 낙후되고 있다. 북한과 경계를 맞대고 있지만 경제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경기도와 비교하면 강원도민의 상실감은 심각하다.

이들에게 성장사회가 필요할까. 그러나 미래를 전망하면 기후위기 심화, 생물다양성의 악화, 환경파괴의 심각성, 바이러스의 잦은 창궐 등으로 성장사회의 미래가 지속가능하지 않다. 이들은 성장사회와 성숙사회의 적절한 배합을 주장할까.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 환경적 가치의 충돌에서 이들은 어떤 가치를 더 중시할까.

셋째, 경계인의 특성을 보이는 시민들을 만나려고 했다. 도시에서 출생해 자랐지만, 시골에서의 삶을 꿈꾸고 귀농 귀촌한 사람들, 문화와 언어적 배경이 다르지만 한국 문화에 적응해야 하는 사람들,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삶을 모두 경험해본 고령장애인과 돌봄노동자들을 만나보기로 했다. 이들은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이질적인 세계를 교차하면서 우리사회의 여러 문제를 예리한 시각으로 포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예컨대, 대전에서 만난 다문화 이주민 여성들은 한국에서 여성, 아내, 어머니, 직장인으로 살면서 다양한 사회적 차별에 시달리고 있다. 우리 사회가 문화적 배경이 다른 이주민을 어떻게 대우하는지 이들의 삶이 극명하게 나타낸다. 특히, 경제발전의 정도가 더딘 제3세계에서 온 이주민 여성들은 가난한 곳에서 왔다는 이유만으로

한국의 가족과 이웃, 직장 동료로부터 모욕적인 경험을 겪는다. 이들은 우리사회의 미래를 어떻게 전망할까.

온라인으로 만난 귀농·귀촌 청년들은 도시에서 살다가 전라북도의 한 시골에서 새로운 생활의 터전을 잡았다. 이들은 왜 도시를 떠나 농촌으로 갔을까. 이들이 떠난 ‘성장지향’의 도시 삶은 어떤 것이었을까. 농촌에서 이들은 농부로서, 귀촌인으로서 새로운 꿈을 꾸고 있을까. 시골 마을의 새로운 공동체에서 이들은 잘 적응하고 있을까. 이들이 전망하는 농촌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

전라남도 광주에서 만난 고령장애인은 우리 대부분이 겪을 삶을 미리 경험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한국이 초고령화되면서 대부분 예전보다 더 오래 살게 되지만 노인이 되면서 겪을 수 있는 각종 질병과 사고로 늘 장애를 걱정해야 한다. 지금은 소수지만 앞으로 다수가 될 고령장애인의 삶을 우리는 얼마나 이해하고 있을까. 이들이 다수가 되는 사회에서 대비책은 무엇일까. 우리는 이들을 보살피는 돌봄노동자들과도 이야기를 나누면서 고령장애인의 삶을 더 자세히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또한, 고령장애인을 돌보는 노동자들의 삶이 고단하며, 이 직업의 지속가능성이 작다는 것도 알 수 있었다.

우리가 만난 지역별 참여자들의 특성과 논의의 주제는 <표 2>에서 정리했다.

<표 2> 시도별 협업 연구기관, 참여자, 미래워크숍 주제

시도별	시민 참여자	미래워크숍 주제
전북 (전북연구원)	귀농귀촌 청년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균형발전, 대도시화의 문제점 • 청년 농업인의 빛, 불안정 거주지, 지역정부의 정책집행 투명성, 1인/비친족가구 증가
경북 (대구경북연구원)	지역공연 예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창작자에게 필요한 사회적, 제도적 환경과 선호미래상 • 늙어가는 지역, 서울에만 집중되는 기회, 지역 청년 외면 정책, 프리랜서의 어려움, 창작지원, 인력, 공연장 부족
강원 (강원연구원)	DMZ 접경지역 거주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과 접경지역 거주민의 선호미래상 • 미중/남북갈등, 환경보존, 인구감소, 고령화, 개발중심의 성장사회 문제점, 접경지역 주민의 소외감
충청 (대전세종연구원)	다문화 이주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 이주여성의 선호미래상 • 이주 전후, 한국 인식의 변화, 직장 내 외국인/여성 차별, 외국과 분쟁 시 다문화 차별
전남 (광주전남연구원)	고령장애인과 돌봄 노동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령장애인이 원하는 미래 • 시설공화국의 문제, 돌봄노동자들의 직업 전문성, 민간중심 돌봄 서비스 문제, 가족해체, 시로봇의 돌봄 대체
제주도 (제주연구원)	제주 해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다 환경과 해녀의 미래 • 해양 플라스틱/육지 개발 쓰레기, 수산자원 감소, 채취물의 판로 협소, 해녀 지원정책 축소,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보존

III. 미래 전망 워크숍 프로그램

이머징 시티즌이 참여한 미래전망 워크숍은 3시간 동안 진행되었다. 프로그램은 총 4단계로 구성되었다. ① 과거부터 현재까지 겪고 있는 어려움 공유, ② 관계, 환경, 기술, 경제, 정치, 국제 등 6개 분야의 카드를 활용한 미래 전망, ③ 악당과 히어로 개념을 활용한 미래 대안 발굴, ④ 팀별로 논의한 내용을 공유하는 전체 토론 등이었다.

<표 3> 미래워크숍 프로그램

단계 및 시간 배분	주요 내용
오프닝(15분)	미래워크숍 목적 및 선호미래/회피미래 개념 소개
과거-현재 탐색(20분)	과거와 현재의 어려움 공유
미래 전망(40분)	미래 트렌드 카드를 활용한 미래 전망
대안 발굴(60분)	현재와 미래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 발굴
전체 토론(30분)	팀별 발표 및 토론
클로징(15분)	질의응답

1. 과거-현재 탐색

과거-현재 탐색 과정은 참가자가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을 공유하며 미래 전망의 토대를 마련하는 과정이다. 예를 들어 전북의 경우 ‘전북의 귀농·귀촌 청년’이라는 대표성에 집중하여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을 공유하는데, 이 어려움이 예전부터 있던 것인지 새로운 것인지를 파악하며 ‘전북 귀농·귀촌 청년’의 미래까지 생각을 확장할 수 있다. 과거에서 현재까지 이어져 온 문제, 이런 문제가 미래에도 지속될 것인지를 상상하는 과정이다.

2. 미래 전망

미래 전망은 과거-현재 탐색을 토대로 미래문제를 발굴하는 과정이다. 이를 위해 미래 트렌드 카드를 활용했다. 미래 트렌드 카드는 관계, 환경, 기술, 시장, 정치, 국제 6개 분야에 대한 주요 이슈를 뜻한다(표4 참조). 분야별로 2개씩 미래 이슈를 제공했는데, 우리사회에서 통상 미래를 전망할 때 자주 논의하는 내용으로 구성했다. 이 이슈들은 과거로부터 누적된 문제면서 앞으로 더 심화할 문제로 가정했다. 자주 언급되는 미래 이슈이지만 지역사회에서 시민들이 전망하는 내용은 다양할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이번 미래워크숍에서는 참가자들이 하나의 이슈를 골라 자신의 삶과 연결해 미래를 전망해 볼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면, 대구공연예술인이 ‘고령화’ 이슈를 고를 시, 고령화와 관련하여 대구공연예술인이 겪을 미래 어려움, 변화 등을 이야기하도록 했다. 미래 트렌드 카드는 참가자들이 개인적 삶과 사회변화를 연결해 미래를 바라볼 수 있게 해주며 이를 통해 참가자들은 기존의 시각으로 전망하지 않던 다양한 미래문제를 생각해볼 수 있다.

3. 대안 논의

대안 발굴은 1, 2단계에서 도출한 과거-현재-미래의 어려움을 토대로 어려움의 주요 원인을 밝히고 대안을 모색해보는 과정이다. 참가자들이 좀 더 과정에 몰입해서 의견을 낼 수 있도록 어려움의 원인은 ‘약당’, 대안은 ‘히어로’라는 개념을 활용하여 질문을 구성하였다. 또한 주위에 히어로의 모습을 닮은 사람이 있는지 질문하여 실천의 영역에서 구체적으로 대안을 고민하도록 하고, 참가자가 바라는 정부와 국회의 역할을 묻는 것으로 프로그램을 완료했다.

<표 4> 미래 트렌드 카드

분야	미래 트렌드	
관계	저출생, 고령화	가족해체
환경	도시와 농촌의 발전 격차	기후 위기의 심화
기술	일자리 양극화	인공지능기술의 발전
경제	경쟁 중심의 경제발전	국가 주도의 경제성장
정치	정치 양극화	정부와 국회 신뢰도 저하
국제	남한과 북한의 갈등	미국과 중국의 갈등

IV. 이머징 시티즌과 나눈 미래 대화

1. 전북 귀농·귀촌 청년들

전북에 거주하는 20-40대 귀농·귀촌 청년 23명을 온라인에서 만났다. 이들은 현재 겪는 어려움으로 귀농·귀촌에 대한 정부의 지원 부족, 불안정한 주거, 대출 규제 등을 꼽았다. 전북 무주에서 귀농 11년 차 청년은 “농사에 전념하려고 시골에 내려와 청년차치단체장도 역임하면서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했다”며 “그러나 지금까지도 수입이 일정하지 않아 농사 초창기에 빌렸던 자금을 갚지 못해 불안하다”고 말했다.

완주에 정착해 귀농 1년 차라고 밝힌 청년은 “농사에 필요한 자금을 농협에서 빌리는데 제출해야 하는

서류도 많고, 거주할 주택을 개량해야 하는데 이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기도 힘들다”고 말했다. 주거가 불안해 농사일을 배우는데 전념하기 힘들다고도 했다.

거주 관련해서 각 지역에서는 청년쉐어하우스, LH행복주택 등을 귀농한 청년들에게 임대하는데, 거주한 지 2~3년이 지나면 나가야 한다(행복주택의 임대 기간은 2년, 최대 6년까지). 이런 상황에서 귀농 청년들은 농촌에 들어오자마자 안정된 거주지를 마련해야 하고, 농사일에도 숙달해야 한다는 압박에 시달린다.

이들은 미래를 전망하면서 “농사하면서 빌린 대출금을 갚지 못하고 다시 도시로 돌아갈 것 같다”, “결국 농사일을 포기하고 지역의 어느 직장에 취직할 듯”, “미래에도 농산물 가격은 오르지 않으며, 인건비와 재료비만 올라 농사를 포기하는 사람이 많아질 것”, “농촌에 거주하는 여성들은 대부분 지역에서 결혼을 포기하고 도시로 떠날 것”, “인구감소로 지역은 소멸하고 개발사업만 지속해서 환경은 파괴될 것”이라고 말했다.

귀농·귀촌 청년들과 미래 카드를 둘러보면서도 논의를 이어갔다. ‘가족의 해체’라는 키워드를 받아 든 청년은 “가족이 해체되면 내가 이제껏 경험한 농사일과 재산을 물려줄 자식들이 없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매우 불안해질 것”이라고 했다. ‘인공지능의 발전’이라는 키워드를 고른 참가자는 “청소년들과 인공지능을 활용한 스마트팜(지능형 농장)을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국가 주도의 성장’을 고른 참가자는 “환경오염시설을 국가성장이라는 명분으로 지역에 들여와 지역사회는 더욱 피해를 볼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가 간 분쟁의 증가’라는 키워드를 고른 참가자는 “지금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원유와 밀 가격이 올라 생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식량 가격의 변동성이 커지면 우리나라의 식량안보나 자립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저출생, 고령화’를 고른 참가자는 “주거환경의 열악, 교통과 일자리 부족, 의료서비스 약화 등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들은 어려움을 가중하는 악당으로 “꿈을 빨리 실현하지 못하면 쫓겨나야 한다는 불안감을 심어주는 정부 정책”을 꼽았다. 앞서도 언급했듯 이들은 지역사회에 정착하자마자 농부로서 자립해야 하고, 안정적인 거주지도 마련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떠나야 한다. 이들은 자신의 노력과 성취가 이런 단기적 정책 탓에 허물어질 수 있다고 걱정했다.

한 청년 농부는 또 다른 악당으로 “국가가 경제성장을 이유로 지역을 재개발하거나 환경오염시설을 유치한 탓에 다른 곳으로 쫓겨나야 하는 상황”을 들었다. 깨끗한 공기와 환경을 선택해 지역으로 내려왔지만, 개발압력 탓에 더 오지로 밀려간다고 했다.

농산물의 유통 구조가 불공평하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이들은 농민만 싼값에 농산물을 넘기고 유통사만 비싼 값에 되팔아 이윤을 남기는 구조라고 말했다. 농업인을 위한 대출 시스템은 농업을 지속하려는 사람들 편에 서 있지 않다는 얘기도 들려주었다.

이런 문제의 해결책으로 참가자들은 “청년 농부의 어려움을 정부에 이야기하고 해결책을 찾는 기회의 증가”, “군 단위 의회에 청년 농부의 참여를 보장해 이들의 목소리를 더 크게 낼 수 있도록 지원”, “군민 중에서

무작위로 시민들을 선정해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참여하도록 제도 개선, “기본소득제 시행” 등을 내놓았다. 특히, 지역 정부가 청년 농부의 문제 제기에 더욱 귀를 기울여 달라고 요청한 목소리가 많았다. 지역의 유지들로만 정책이 만들어지는 구조에서 탈피해 이주민이나 청년 농부의 의견을 반영하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 대구 지역공연예술인들

대구에 거주하는 공연예술인 19명을 만나보았다. 이들은 현재 겪는 어려움에 관해 “지역 정부가 배정한 예산 중에서 공연예술인에게 돌아가는 예산은 늘 부족”, “사회정책에서 예술인은 소외되는 상황”, “개인보다 단체에게 주는 지원사업이 많아 개인 공연예술인은 생존하기 힘든 여건”, “경제적 어려움” 등을 꼽았다.

이들은 미래를 전망하면서 “기술의 발전으로 연극계에도 변화가 생겨 연극인이 아니라 기술 지원자로 살 듯”, “인공지능 배우도 등장해 우리 직업은 사라질 것”, “관객을 넷플릭스 같은 다국적 엔터테인먼트 기업에 빼앗길 듯”, “인간과 인간이 만나는 곳이 연극 무대인데 코로나19 같은 팬데믹이 빈번해져 못 만날 듯”, “인구가 감소해 객석 수가 줄고 결국 무대도 사라질 것” 등의 의견을 내놓았다.

우리는 미래 키워드를 활용해 이들과 미래 논의를 이어갔다. ‘저출생, 고령화’에 대해 “연극의 주제가 노인의 삶에 대부분 맞춰질 것”이라고 했고, ‘도시와 농촌의 격차 확대’에 관해서는 “대도시의 문화 환경만 구축, 개발되고 지역의 문화 인프라는 쇠락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쟁 중심의 사회’라는 키워드에 관해서는 “창작자보다 유통사의 배만 불리는 미래”, “경제는 발전하겠지만 개인의 성장과 발전은 도모하기 어려운 미래”라고 말했다.

‘대기업 중심의 사회문화’에 대해 “대기업이 문화예술계를 접수하면 다양한 소수의견을 내는 공연예술인들의 노력이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문화예술인은 새로운 사회의 모습, 대안적 미래, 소수 약자의 삶을 전달하는 사람들인데 이런 역할이 존중받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가족 해체 현상이 더욱 진전되면 공연에서 다룰 주제가 사라진다고도 했다. “예술은 관계, 사회, 인간의 얘기를 하는 곳인데 가족이 해체되면 할 이야기가 있을까”라고 반문했다.

이들의 어려움을 가중하는 악당으로 “경쟁 중심의 문화”, “유통사의 착취”, “예술인의 배고픔은 당연하다는 사회적 분위기”, “늪어가는 도시, 청년을 배제하는 정책” 등을 꼽았다. 이 가운데 예술인의 가난을 조롱하는 문화는 곱씹어볼 만하다. “하고 싶은 것을 하는 사람들은 가난해도 싸다”는 사회적 인식 때문이다. 경쟁 중심의 문화에서 사람들은 하고 싶은 일보다는 돈벌이가 되는 일을 하게 되고 이마저도 ‘영혼을 갈아 넣을’ 정도로 하지 않으면 생존하기 힘들다. 이런 환경에서는 누구도 일을 통해 즐겁지 않게 된다.

개인의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보호가 약하다는 점도 악당으로 거론되었다. 예를 들면, 대기업에서 공모전을 통해 취득한 저작물은 대기업이 소유한다. 이는 공연예술인의 성장을 대기업이 막고 있는 증거라고

말했다.

지역공연예술인들은 악당을 물리칠 ‘히어로’의 예로서 “독립영화가 성공했듯 연극계에도 이런 사례가 나와야 한다”, “예전에는 공연예술인끼리 서로 도왔던 문화가 있었다”, “연극인들을 위한 4대 보험 가입”, “지역공동체가 반짝이는 지역 인재를 찾아내 성장시키는 정책과 문화”, “예술인 최저임금제의 실행” 등을 제시했다.

예술인들이 활동을 멈춘다면 우리 사회는 대안을 제시하는 공간과 상상의 역량을 잃어버린다. 이런 점에서 지역공연예술인의 생존과 성장을 위한 정책은 더욱 개발되어야 한다.

3. 강원 DMZ 접경 주민들

강원도 인제에서 DMZ 접경 주민 19명을 만났다. 이들은 현재 겪는 어려움으로 “고령화 추세로 농촌의 소멸 우려”, “DMZ 접경지역이어서 잦은 대포 소리와 총소리로 고통”, “생활 인프라 부족”, “도시재생 사업을 명분으로 원주민이 쫓겨나는 상황”, “규제가 많아 더딘 발전” 등을 거론했다.

여타 농촌지역처럼 인제도 저출생과 고령화로 지역의 소멸을 걱정했다. 지역의 미래를 책임져줄 청년층의 인구 유입이 감소하면서 인제의 앞날을 걱정하는 주민들은 인구 유입이 활발한 다른 지역을 찾아 노하우를 배우고 있다. 최근에는 전남 영광과 해남지역을 다녀와 거주환경 개선으로 청년층을 유입한 사례를 보고 온 바 있다. 그러나 이런 성공사례는 지역적 특수성을 반영한 경우가 많아 기계적으로 인제군에 도입하기란 쉽지 않다. 그럼에도 정주 여건, 거주환경의 개선은 새로운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 결론을 얻었다.

이들은 미래를 전망하면서 “가족해체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이며 이 때문에 노인들의 고독사와 외로움은 심해질 것”, “중앙정부와 지역 정부의 잦은 갈등”, “정치 양극화와 남북갈등의 심화로 불안감의 확대”, “낙후된 지역 인프라” 등을 꼽았다. 특히 북한과 접경지역이어서 이들은 남북갈등이 두드러지면 지역에 포탄이 떨어질까 불안하다고 털어놓았다.

어려움을 가중하는 악당에 대해 “인구소멸과 지역소멸”, “지역이기주의와 주민 간 갈등”, “획일화된 경제성장, 개발주의” 등을 언급했다. 오랫동안 인제에 살았다는 한 주민은 “20년 뒤에도 우리 자식들이 인제에 살려고 할까 예상해보면 답은 매우 부정적”이라며 “주거환경이 불안하고 일자리가 부족하면 남아 있는 청년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북한 접경지역의 주민들은 이중삼중의 인구감소를 걱정하고 있다. 고령화와 저출생에 이어 군부대 이전과 군인 감소 때문이다. 또 다른 인구감소의 요인은 지역의 재개발과 관련이 있다. 도시재생을 명분으로 지역이 개발되는 과정에서 지역에 폐가가 증가하고 이에 따라 환경오염과 소음공해가 심해진다. 민간자본을 들여와 도시재생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원주민들이 겪는 불편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않는다.

결국 원주민들은 여러 문제에 시달리다가 고향을 떠나는 것이다.

지역의 인구감소를 막기 위해 주민들은 여러 대안을 강구한다. 예컨대, 청년층의 인구 유입을 위해 비어 있는 군인 아파트를 리모델링해서 청년층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방안도 의논했다. 정주 여건 우선 조성, 공공일자리의 확충, 기업들의 재택근무 권장, 지역의 기업과 청년 일자리 협약 등의 아이디어도 내놓았다.

환경보존과 경제성장의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인제군 주민들은 기존의 경제성장 일변도의 방법보다 새로운 성장의 길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주었다. 이들은 “환경교육의 확대, 생태환경의 중요성 강조, 주민참여형 건강 도시의 구축, 에너지 자립 지역 등으로 인제의 지역적 특성을 살리면서 새로운 성장의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인제는 2040년 RE100(renewable energy 100%) 달성을 목표로 하며 자녀들에게는 어렸을 때부터 환경교육을 시행해 미래세대에게 아름다운 환경을 물려줘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환경보존과 경제발전의 갈등에서 인제가 어떤 모범적인 길을 제시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4. 대전 다문화 이주민 여성 노동자들

대전과 세종에 거주하는 다문화 이주민 여성 10명을 만났다. 참가자의 최소 거주 기간은 9년, 가장 거주 기간은 22년이었다. 이들은 현재 겪는 어려움으로 “다문화 이주민 여성에 대한 차별적 시선과 대우”, “외국인 아내를 부끄러워하는 한국인 남편과 시댁”, “한국에서 낳은 자녀도 다문화 이주민으로 대하는 사회문화”, “외국인 노동자들의 열악한 작업환경”, “소속이 없으면 능력을 의심하는 직장 문화” 등을 거론했다.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시집온 지 12년 된 한 여성은 “주위의 한국 사람은 아직도 자신이 돈을 받고 결혼한 줄 안다”며 “다문화 이주민에 대한 한국인의 이해도가 떨어져 편견과 오해가 심하다”고 털어놓았다. 중국에서 이주한 여성은 “한국 남자가 돈이나 학벌이 있었으면 한국 여자와 결혼했을 것이라는 주위의 말을 들을 때마다 속이 상한다”며 “한국의 남편들도 외국인 부인을 창피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미국이나 일본, 북유럽 등 이른바 선진국에서 한국으로 시집온 여성에게는 이런 편견을 갖지 않는다고 했다. 심지어 선진국에서 온 아내는 자녀에게 자신의 나라 언어를 가르치도록 한국인 남편이 권장하지만, 동남아시아 등 개발도상국에서 온 부인은 집에서 자녀에게 자신의 나라 언어를 쓰는 것조차 한국인 남편이 금지한다.

다문화 이주민으로서 받은 차별에 관해 “오래 한 곳에서 일해도 경험을 인정하지 않고 승진도 시켜주지 않는다”며 “해마다 계약을 갱신하는 처지라 내년에도 일이 있을지 불안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미래를 전망하면서 “장차 퇴직하게 되면 이주민으로서 연금으로 살 수 있을지 걱정”, “건강하지 않아 일을 못 하면 한국을 떠나라는 압력을 받을 듯”, “앞으로 20년 동안 다문화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한국을 떠날 것”, “현재 외국어를 가르치는데 고령자가 된 미래에 누가 노인에게 외국어를 배우려고

할지 걱정”,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면 홀로 외로울 것”이라는 의견을 내주었다.

이들의 생존에 대한 두려움, 고립과 고독, 경제적 기여를 하지 못할 때 사회에서 내쳐질 수 있다는 불안감은 매우 컸다. 이런 불안한 마음은 미래 카드를 놓고 이야기하는 중에도 터져 나왔다. 중국에서 이주한 여성은 ‘미중 갈등의 심화’라는 키워드를 놓고 “이대로라면 한국인의 중국에 대한 혐오는 더 심해질 것 같고, 나처럼 중국 출신이 비난받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일본에서 이주한 여성은 ‘정부의 신뢰도 저하’라는 키워드에 관해 “만약 한국 정부의 신뢰도가 지속해서 떨어진다면 아마 한국 정부가 시민들의 불만을 잠재우려고 외국에 대한 혐오를 부추길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나처럼 일본에서 온 사람들은 이 혐오의 희생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이주민 여성은 ‘기후위기’에 대해 “경제발전보다 기후위기 대응이 더 중요해질 것”이라며 “한국은 논밭을 없애고 아파트를 짓는데, 기후위기가 심해지면 본격적으로 식량난이 벌어질 것”이라고 걱정했다.

이들은 어려움을 가중하는 악당에 대해 “외국인에 대한 편견, 단일민족이라는 신화”, “경제가 어려워지면 외국인부터 나가라는 한국의 문화”, “독도 문제, 동북공정 등 외국과 분쟁이 벌어지면 외국인 출신 자녀들이 당할 차별”, “동남아시아 같은 제3세계에서 오면 더 차별하는 문화” 등을 거론했다. 편견, 차별, 배제, 압력의 단어가 이들의 이야기에서 자주 등장했다.

이들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다문화 출신의 정치인 등장”, “다문화센터를 여러 곳에 세워 다문화 이주민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교육의 확대”, “외국인 노동자들이 자신의 어려움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회적 기회의 증가”, “다문화 이주민들의 잠재적 능력을 키워주는 전문 기관의 설립” 등의 아이디어를 내주었다.

이들이 느끼는 미래 불안감은 우리 사회의 소수 약자가 느끼는 불안감이다. “20년 뒤 나만 한국에 남아 있으면 매우 불안할 것 같다”는 어느 이주민 여성의 말은 우리 사회 누구나 느끼는 불안이기도 하다. 이주민의 불안은 곧 우리사회의 불안이며, 이를 완화하거나 대응하지 않는다면 이 불안감은 확산할 것으로 전망된다.

5. 전남 고령장애인과 돌봄노동자

전남 광주에 거주하는 두 명의 고령장애인을 만났다. 고령장애인은 거동이 불편해 집밖으로 나가기 힘들어 직접 방문해서 개별적으로 만나야 했다. 우리는 70대 남성 고령장애인과 60대 여성 고령장애인을 만나 이들의 어려움과 해결의 방법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다.

70대의 남성 고령장애인은 대학을 나와 오랫동안 공무원으로 살았다. 그는 과거 척추 수술을 몇 차례 했으며 지금은 “대소변을 억지로 빼내는 장치를 달고 하반신이 마비가 되었다”고 했다. 그는 현재 겪는 고통에 대해 “작열통처럼 피부가 타는 고통”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발현이 되지 않았을 뿐 누구나 장애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며 “장애인에게 무슨 복지 혜택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애인마다 가진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여러 기회를 열어주는 정책이 더욱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장애인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생존이 아니라 ‘존엄한’ 생존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존엄한 생존이 별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휠체어를 타고 나갈 수 있는 삶”이라며 “매년 지자체에서 새로 보도블록을 깔고 있지만 장애인이 다닐 길은 여전히 없다”고 말했다. “장애인은 대부분 소외감도 느끼고 외로움도 큰데 병 치료와 관련이 없더라도 심리를 전공한 사람이 와서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힐링과 위안이 된다”고 했다. 그가 제안하는 존엄한 생존은 비장애인에게는 일상이지만 장애인에게는 닿을 수 없는 환경이다.

우리가 만난 60대 여성 고령장애인은 암 투병과 지체 장애, 불편한 거동으로 거의 집 밖으로 나갈 수 없는 처지였다. 곁에서 헌신적으로 도와주는 요양보호사가 없으면 일상이 불가능해진다. 항암치료를 받는 날이면 병원에서 온종일 입원해야 하고, 집으로 돌아오면 며칠을 앓아눕는다. 그럴 때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어 하소연하고 싶는데 그럴 사람도 없다. 겨우 인근 교회 교인이나 요양보호사에게 전화를 걸 수 있지만 이마저도 미안해서 참는다. 그래도 이들의 도움은 삶을 지탱하는 의지가 되어준다.

그는 “매월 30만 원을 정부로부터 받는데 임대아파트 관리비로 13만 원을 내고 병원에 갈 때 차비 등을 제외하면 생활비로 쓸 수 있는 돈이 거의 없다”며 “요양보호사가 직접 쌀도 가져오고 반찬도 해줘서 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 달에 한 번 병원에 갈 때만 밖을 구경하는데, 이때 “꽃이 많이 피었구나. 벚가 많이 자랐다”고 느끼는데, 혼자서라도 집 주변을 산책하는 것이 꿈이라고 말했다.

지체장애인으로 살면서 그는 스스로 기술을 익혀 자립하려고 했지만, 사회는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했다. “저거는 내가 할 수 있는데, 분명 잘 할 수 있는데 했던 일이 많았는데 나의 능력을 알아주는 사람을 만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주변에서 자신을 두고 “저 사람 저 일 못해요. 어디 하게 생겼냐”고 핀잔을 줄 때마다 주눅이 들고 마음이 아파도 속으로만 삭였다고 털어놓았다. 그는 “솔직히 사람들이 싫다”며 “그래서 나 혼자 있는 시간이 더 즐겁다”고 말했다.

우리는 고령장애인을 돌보는 돌봄 노동자(공공기관 소속 요양보호사) 16명을 만나보았다. 이들은 현재 겪는 어려움으로 “요양보호사의 직업적 전문성을 인정하지 않는 문화”, “중증 환자를 보호하는데 필요한 의료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제도적 결함”, “매우 기본적인 보호 활동만 하도록 부추기는 현재 요양보호 시스템의 문제”, “환자 가족들의 요양보호사에 대한 몰이해와 갑질”, “환자마다 위기 상황에서 대처가 달라 매번 긴장해야 하는 상황” 등을 거론했다. 대부분 요양보호사는 어려운 처지인 사람들을 돕는다는 사명감에서 시작하지만, 실제 돌봄 노동자로서 겪는 차별과 부당한 대우는 자발적 의지를 꺾어놓는다고 털어놓았다.

한 요양보호사는 “노인 돌봄 노동자들은 노인들의 잔존 능력을 유지하거나 키우는 등의 전문적 활동을 하는데 환자의 가족이나 환자는 자신을 가사도우미 정도로 인식한다”고 말했다. 때론 남자 노인들이 여성 돌봄 노동자들에게 성적 희롱과 성추행도 한다. 이런 일은 가끔 언론에 보도되고 있지만 실상 돌봄 노동자들은 다반사라고 입을 모은다. 한 여성 요양보호사는 “이런 일이 많아 나는 남성 노인 환자는 기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이 돌봄노동을 하면서 겪는 현장의 어려움은 매우 다양하고 위급했다. 이들은 “문을 열고 들어가면서

환자의 이름부터 부르는데 만약 대답이 없으면 쓰러져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럴 때는 너무 긴장된다”, “심장약의 부작용으로 폐에 물이 찬 92세 노인을 돌보기 위해 병원에 갔는데 누구도 나에게 이 환자의 병력에 관해 이야기해주지 않아 무엇부터 해야 할지 난감했다”, “뇌출혈로 쓰러진 환자를 4년째 돌보고 있는데 언어 수준이 7세 이하의 아동과 같아 무엇이 필요한지 눈치로 알아내야 하는 것이 어렵다”, “노인을 돌보러 갔는데, 집안에 들어가면 가족들의 빨래와 설거지가 놓여있고 이런 일부터 하라는 얘기를 들을 때 기분이 상한다” 등을 털어놓았다.

이들이 전하는 돌봄노동 현장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고령화 시대에서 정작 노인들이 더 나이를 들어감에 따라 어떤 변화를 맞이하는지, 노인이 되면서 얻게 되는 각종 질환은 무엇인지, 그에 따라 어떤 조처를 해야 하는지, 이들의 인권은 어떻게 보장되어야 하는지 사실상 모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돌봄노동자들은 이구동성으로 “나도 늙으면 저렇게 될 텐데 한국의 돌봄노동 시스템으로는 내 미래가 걱정된다”고 말했다. 지금은 이들의 희생으로 돌봄 서비스를 지탱하고 있지만 이들이 은퇴하면 그다음 세대가 이런 ‘정글’ 같은 일터의 현장에서 돌봄의 일을 하고 있을지 우려된다는 말이었다.

이들이 언급한 ‘악당’은 “고령 노인의 상태를 거의 모르는 사회에서 이들을 돌보아야 하는 상황”, “전문 교육의 부재와 합당한 대우가 없는 현실”, “전문적 요양보호사를 키우려고 하지 않고 긴급돌봄만 중요하다는 복지체계”, “돌봄 노동자들을 돌보는 사람이나 시스템의 부재”, “사회적 신뢰가 낮은 사회에서 요양보호처럼 개인에게 밀접한 서비스는 매우 어려운 상황” 등 이었다. 특히, 돌봄노동자들은 아파도 쉴 수 없으며, 개인 휴식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 길거리를 배회하면서 쉬어야 하고 이동시간을 빠듯하게 인정해줘 과로에 몰리는 상황을 호소했다.

이들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돌봄 대상자, 그의 가족, 요양보호센터를 운영하는 센터장 등이 요양보호사의 인권과 직업적 처우에 대해 이해를 높이는 교육을 받게 하고 특히 돌봄 대상자가 성희롱했을 경우 엄정하게 대처하는 제도”, “고령장애인의 처지를 이해하고 이들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각종 지원시스템의 확충”, “요양보호사의 주당 일하는 시간을 59.5시간으로 정해 4대 보험을 받지 못하게 하는 운영기관과 제도의 보완”, “진짜 돌봄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환자가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돌봄 서비스의 양극화 현상 타파” 등을 거론했다.

6. 제주 해녀들

제주에서 해녀 23명을 만났다. 이들은 현재 겪는 어려움에 대해 “바다 온도가 지속해서 올라 성게 같은 해산물을 채취하기 어려워졌다”, “바다의 각종 쓰레기 때문에 작업하기도 힘들고 때론 오징어 잡는 고리들 때문에 손을 다치기도 한다”, “기후변화로 외래종이 우리 바다로 들어오고 상어 떼도 출몰해 물질이 점점 어렵다”, “해녀가 되는 과정이 너무 복잡하고 어렵다” 등의 의견을 들려주었다.

기후변화와 환경파괴에 관해 이들의 생생한 증언을 들을 수 있었다. 바닷물이 언제부터 짜지 않다거나

바다의 사막화로 불리는 백화현상(해조류가 자라지 못하도록 하는 석회조류가 바다의 바위를 뒤덮는 현상), 바다의 수온이 높아지면서 제주에도 물범이 들어오고 이들의 유입에 따라 상어도 함께 들어오는 등 바다의 변화가 심상치 않았다고 전했다.

육지에서 버리는 폐수, 육지의 개발 과정에서 베어진 나무들의 잔해가 바다로 흘러들어와 근해에 쌓여 바다생물을 살지 못하게 하는 상황 등은 빈번하게 벌어지는 사건들이었다. 해변가의 음식점들이 쏟아내는 배출수에 소라들이 썩어가며 해파리 떼가 출몰해 해녀들을 공격하는 현상도 빈번하다. 한 해녀는 “기후변화 때문에 미역이 바다에서 살지 못하고 흐물흐물 녹아 죽어가고 있다”고 전했다.

이들은 미래를 전망하면서 “해녀들의 고령화로 아마 20년쯤 지난 후에는 해녀를 보기 힘들 것”, “해녀의 연평균 수입은 300만 원이 되지 않는데 누가 해녀를 계속할지 모르겠다”, “바다 환경은 지속해서 나빠지고 양식이 증가하면서 폐수 또한 증가해 해녀의 일터는 날로 폐허가 될 것”이라는 의견을 내주었다. 해녀들의 연평균 수입이 300만 원을 넘지 않는다는 말은 충격적이었다. 이 때문에 이들은 2~3개 직업을 갖지 않으면 살 수 없다.

이들이 겪는 어려움을 가중하는 악당으로 “다양성과 지역의 특수성은 사라지고 대기업의 효율성, 획일성만 살아남는 한국의 경제시스템”, “해녀를 하고 싶어 한 일이고 사회적으로도 유익한 일인데 가난할 수밖에 없는 구조”, “해녀의 일터를 기후변화나 환경파괴로 잃어야 하는데도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는 구조”, “미래세대 해녀를 키우지 않는 어촌계와 정부 정책”, “수협이 해산물의 판로를 독점해 해녀들의 이익이 나지 않는 상황” 등을 꼽았다.

특히 수협의 문제는 여러 해녀가 공통으로 지적한 것으로 해산물의 양과 판로를 획일적으로 지정하다 보니 해녀들이 상황에 맞게 대응하기가 어렵다고 토로했다. 일률적으로 해산물의 포획량을 정해놓아 해녀들이 지역별 상황에 맞게 해산물을 채취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그러다 보니 미래계획을 세우기 어렵고, 변화하는 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하기도 어렵다.

해녀가 되는 획일화된 교육 시스템도 문제로 지적되었다. 해녀 양성을 위해 해녀학교를 세웠지만 여러 까다로운 조건 때문에 ‘진짜’ 해녀가 되려는 지역의 청년들에게 걸림돌이 되고 있다. 또한, 20~30대에게는 2~3년 동안 해녀가 되는데 필요한 정착금을 지원하지만 40대 이상의 지원자에게는 이런 혜택을 주지 않는다. 다양한 방식으로 자발적으로 해녀가 되려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해녀들이 탈의하거나 물질이 끝난 이후 몸을 씻는 공간도 점차 폐쇄되고 있다. 바닷가 인근에 가건물을 짓고 오랫동안 해녀들의 탈의실로 썼지만, 환경을 해친다는 이유로 철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 용두암 근처에서 만난 해녀는 “여기 탈의실도 곧 철거할 예정이라 앞으로는 바닷가에서 탈의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해녀들은 “집안의 명맥을 잇고 싶어서”, “바다의 숨소리가 좋아서”, “비가 올 때 바닷속에서 밖을 보는 게 신비로워서”, “바다가 미치도록 좋아서” 해녀가 됐다고 했다. 이들에게 바다는 일터이자 삶을 지속하는

장소이다. 이런 바다가 오염되고 병들어가고 있음을 몸소 체험하고 있지만, 바다의 치유에 대해 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쓰레기를 줍는 것밖에는 없다. 이들이 육지의 배출수, 폐수를 고발해도 바뀌지 않고, 육지의 개발로 바닷가가 망가지는 것에 대해 항의해도 경제발전을 이유로 무시되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이들은 “해녀는 약자”라고 말한다. 약자여서 바꿀 수 없다는 자조였다.

젊은 해녀들 사이에서는 개선과 개혁의 목소리가 높다. 이들은 해녀가 잡은 해산물을 ‘라이브 커머스’ 형태로 판매할 방법을 모색하고 있으며, 해녀들이 직접 해산물을 가공하는 공장도 운영하려고 한다. 해녀들이 연대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만들고, 이런 힘을 바탕으로 바다를 오염시키는 각종 원인에 대해 해결의 목소리를 높일 계획이다.

IV. 시사점: 성장 앞에 붙여야 할 단어들

우리는 6개 지역의 주민들과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 미래에도 예상되는 어려움, 이런 어려움을 가중하는 사회적 요인과 해결책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다. 지역별로 주민들이 겪고 있는 문제들은 다양했다. 그러나 국가 주도의 성장주의, 경쟁 중심의 성장주의,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는 성장주의의 문제점과 그 대안으로 초점을 맞춰보면 공통적인 의견이 확인된다.

6개 지역 시민들과 미래워크숍에 나눈 사회적 문제와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표 5>와 같다. 주요 내용을 보면 특정 지역과 계층, 그룹만 겪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사회 전반에 퍼져있는 문제들로 볼 수 있다. 결국, 이 문제들을 풀지 못하면 더 많은 시민에게 불안감과 좌절감을 줄 가능성이 크다.

<표 5> 이머징 시티즌이 경험한 사회적 문제들과 주요 내용

이머징 시티즌이 경험한 사회적 문제들 (지역별 미래 대화에 참여한 시민들)	주요 내용
꿈을 빨리 실현하지 못하면 쫓아내는 정부 정책 (전북 귀농귀촌 청년들)	정책 대상의 초기 유입 단계만 집중, 단기에 양적 성장만 추구하는 정책
외형에만 투자, 문화 자산은 축적하지 않는 정책 (대구 공연예술인들)	문화시설, 행사유치에만 지원 집중, 문화를 만드는 창작자의 역량, 창작물 보호, 창작자 생태계 조성은 소홀
경제성장과 환경보존의 지속적 갈등과 대안 부재 (강원 DMZ 접경 주민들)	중앙정부와 지역정부 갈등 지속, 지역주민의 참여를 배제하는 정책 과정
사회가 불안하면 소수와 약자부터 차별하는 문화 (대전과 세종시 다문화 이주민 여성 노동자들)	경제적 기여를 기준으로 차별하고, 성장의 기회를 독점하려는 사회지배층

이머징 시티즌이 경험한 사회적 문제들 (지역별 미래 대화에 참여한 시민들)	주요 내용
가족과 공동체의 해체, 사회적 돌봄의 약화 (전남 고령장애인과 돌봄노동자들)	소외감과 외로움을 느끼는 시민들의 증가, 돌봄 노동자의 역할 축소
미래세대, 미래환경을 파괴하는 정부의 무책임 (제주 해녀들)	경제발전과 도시개발을 명분으로 환경파괴, 인재 양성 시스템의 관료화

우리는 지역주민들과 미래 대화의 말미에 성장이라는 단어 앞에 어떤 말을 붙이면 좋을지를 물었다. 시민의 눈높이에서 성장의 새로운 방향을 논의하고 싶어서다. 이들은 다양한 성장의 방향을 제시했는데, 종합해보면 3가지의 방향이 확인된다.

첫째는 지금까지 우리 사회가 줄곧 추진했던 성장에 대한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개인의 성장을 희생하고, 개인의 차이를 무시했던 국가적 성장주의는 다양한 사회구성원이 공존하는 토대를 허물었다. 세계와 경쟁해야 하는 국제현실에서 국가가 능력 있는 개인을 앞세워 지속해서 성장을 추구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실력을 끌어올려 양적 성장률을 높이는 전략은 지속가능하지 않다. 경제성장이 국가의 목표는 될 수 있어도 개인의 목표는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생존을 위협할 정도로 가난했던 과거에 경제성장에 집중했던 것은 일시적 과제였을 뿐 경제적 성장만이 우리 삶의 목표는 아니다. 예전처럼 삶이 피곤해도 돈을 더 벌 수 있다면 일하겠다는 사람보다 경제적으로 덜 여유롭더라도 자유롭게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사람이 많아졌다. 500만 원을 벌면서 도시에 사는 것보다 200만 원을 벌면서 시골에서 사는 것이 인생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점차 늘고 있다.

미래 전망 워크숍에 참여한 시민들은 “적절하게 멈추는 성장”, “치우치지 않는 성장”, “이제 그만 성장”, “착륙하는 성장”, “평온의 성장”, “내면의 성장” 등 성장주의에 대한 성찰로 해석할 수 있는 단어들을 제시했다. 전북의 귀농·귀촌 청년은 성장 앞에 ‘착륙’을 언급했다. 그는 “바둑을 두는 일도, 치킨을 튀기고 커피를 타는 일도 인간보다 기계가 훨씬 잘하는 시대, 조만간 변호사와 의사의 역할도 인공지능이 대신할 것”이라며 “그렇다면 인류는 격차를 줄이고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개인의 성장이나 환경보존, 계층의 공존 같은 걸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일귀농은 경제적 성장을 안전하게 ‘착륙’시켜야 하며, 착륙해야 하는 곳은 더 성장한 경제 선진국이 아니라 공존, 배려, 개인의 성장, 환경의 보존 등의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라는 것이다.

둘째는 성숙사회를 위해 지금까지 추진했지만 더욱 힘써야 할 성장에 관한 것이었다. 시민들은 경제성장을 중요한 가치로 인정하면서도 이제는 대안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당장 기후위기 대응, 생물다양성보존 등의 세계적 과제도 놓여있다. 급격한 에너지 전환에도 대비해야 한다.

미래 전망 워크숍에 참여한 시민들은 “농촌과 도시의 균형성장”, “포용과 의식의 성장”, “개인의 시민성

성장”, “문화적 성장”, “가치의 성장” 등 물질보다는 정신, 경제보다는 문화와 가치, 집단이나 사회보다는 개인, 불균형이 아닌 균형, 구별이 아닌 포용 등의 방향성을 강조했다. 우리 사회가 이런 방향에 대해 일부 추진한 경험이 없지 않지만, 성장의 목표를 재조정하고 그에 따라 시민과 사회의 역량을 어디에 집중할 것인지 재논의하는 것은 필요해 보인다.

마지막으로 이제까지 거의 논의되지 않았던 성장의 방향을 확인하기도 했다. 미래 전망 워크숍의 참여자들은 “인간이 존재하는 모든 환경의 건강한 성장”, “다문화 성장”, “개인이 원하는 것을 주장하며 살 수 있는 성장” 등을 제시했다. 이런 성장의 방향성에는 인간중심주의 극복을 암시하는 것도 있고, 한민족이라는 틀에서 벗어나 다양한 문화를 창조하자는 제안, 그리고 개인이 스스로 미래를 기획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공동체의 등장을 요구하는 것도 담겨 있다.

이는 이머징 시티즌의 전망과 대안에 대해 좀 더 깊이 있는 논의의 장이 마련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우리 사회의 대안들을 제시하고 있어서다. 여러 대안의 방향이 논의될 수 있겠지만, 지역사회의 자율과 분권화의 강화, 다양한 시민들이 주권자로 공공의 문제에 참여하고 결정하는 풀뿌리 공론장의 형성, 국회의 지역 정책 강화, 바람직한 변화에 다가가는 사회적 신뢰도의 전반적 향상 등을 거론할 수 있다. 앞으로 이머징 시티즌 연구는 이런 방향을 고려하면서 더 진전시켜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국회미래연구원. (2021). 미래비전 2037, 성장사회에서 성숙사회로 전환. 국회미래연구원.
- 박경숙. (2022). 대구 연극 창작환경 분석 및 개선과제. 국회미래연구원 발표 자료.
- 박성원 외. (2019). 한국인 선호미래 조사 연구. 국회미래연구원.
- 박성원. (2020). 보존분배사회 전환을 위한 국민의 선택. 국가미래전략 Insight 제6호, 국회미래연구원.
- 박성원. (2021a). 선호미래로 향하는 우회도로. 국가미래전략 Insight 제21호, 국회미래연구원.
- 박성원. (2021b). 이머징 이슈 연구와 세계 동향. Futures Brief 제1호, 국회미래연구원.
- 양철. (2022). DMZ 접경지역 탄소중립 전략의 주요 내용. 국회미래연구원 발표 자료.

Futures Brief 발간현황

vol	제목	작성자	발행일
1	이머징 이슈 연구와 세계 동향	박성원 (혁신성장그룹장)	2021.7.29
2	한국의 미래 SDGs 이행 방향에 대한 논의: 분절에서 통합으로	조해인 (삶의질그룹 부연구위원)	2021.8.26
3	경제성장이라는 세속 종교와 GDP라는 마법의 숫자: 대안 탐색을 위한 시론	이상직 (삶의질그룹 부연구위원)	2021.9.30
4	2022년 주목할 15개 이머징 이슈	박성원 (혁신성장그룹장)	2021.12.2
5	과학기술의 미래 영향평가: 유럽의회 2021년 보고서 “전례 없는 이슈에 대한 의회의 대응”	박성원 (혁신성장그룹 연구위원)	2022.1.17
6	동북아 환경분쟁 이슈 및 대응전략	김은아 (혁신성장그룹장)	2022.2.28
7	이머징 이슈를 발견할 기회의 창: 갈등 관련 10대 이머징 이슈와 시사점	박성원, 김유빈 (혁신성장그룹 연구위원)	2022.7.18
8	‘전례 없는’ 키워드를 통해 도출한 9대 이머징 이슈	박성원 (혁신성장그룹 연구위원) 김유빈 (명지대학교 교수)	2022.10.4
9	이머징 시티즌의 등장과 사회적 전환: 6개 지역 시민과 미래 대화	박성원 (혁신성장그룹 연구위원)	2022.12.5

• 이 자료는 국회미래연구원 홈페이지(www.nafi.re.kr) 및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